

시험에 속지 말라 고전 10:1-13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없다. 그러면 이 일을 가장 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다. 그 시대의 역사를 그 사람 중심으로 돌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발견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소원, 생각을 언약으로 잡는 날이 되기 바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하셨다. 다른 어떤 것의 증인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내 언약의 피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다. 그 때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는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넘어가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된다. 이 말이 깨달아지고 들어와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말씀이 들어와 언약이 된 사람은 샘솟듯 속에서 힘이 계속 올라온다. 이 힘이 없으면 지속이 안된다. 이 힘이 있으면 당연히 지속하고 이것 말고는 행복한 것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언약의 사람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어진다. 첫째 이유는 영적으로 통해버리기 때문에 갈등 없어진다. 두 번째 이유는 응답이 계속 오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진다. 응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일등은 아니다. 그것은 2등이다. 기도가 잘 안되고 응답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계속 금식하고 애를 쓰는 것이다. 믿어지면 왜 애를 쓰겠는가. 이렇게 통해버리는 것을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것이다. 근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내 마음이 통해버리는 것이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말리지 못한다. 무슨 방법으로든 이 사람의 인생을 깰 수 없다.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경복을 하는 것이다. 놀리는 것이 아니다. 응답을 경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데 누구에게 해주느냐? 이것이 포인트이다. 언약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원에서 통해버린 사람, 원네스가 된 사람.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응답이 일어난다.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 응답되고 성취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사역자를 안하겠는가? 답이 나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사역자를 해야 한다.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

1. 시험에 속지 말라.

13절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다. 내가 예수님을 1983년도 8월에 처음 교회에서 믿었다. 병이 있어서 갔기 때문에 발버둥을 쳤다. 그때 고쳐주셨는데, 그 해 12월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직 불신자나 비슷했기 때문에 술을 한잔 마시러 나갔다. 아내도 가라고 했다. 그래서 나갔는데, 새벽 4시에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너는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가서 술을 마셔? 그래서 그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잊지를 못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니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를 않으신다는 것이다. 니가 감당할 것만 주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하신다는 것이

다. 그 정도가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였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을 안하고 시험이 왔을 때 피할 길이 있다면 된 것 아니겠는가? 이 두가지를 이야기 했다. 니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 안한다. 그리고 피할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말씀은 한마디만 들어와서 언약이 되면 성경 전체가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앞에서부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집에 가서 조용하게 한번 쪽 읽어보기 바란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너희가 꼭 알기 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쪽 해나가기 시작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아바, 구름기둥, 바다를 통과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음료를 마셨다고 하였다.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매일 먹었다. 물도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이들이 붙잡고 나온 유월절 피가 있기 때문에. 6절에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있었던 큰 일 세가지를 예를 들었다. 첫째는 7절에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2만3천명이 죽었으니 음행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은 민수기 25장 이야기이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좋아해서 그 신에게 가서 절하고 같이 음행하다가 죽은 사건이다. 그 날 2만 3천명이 죽었다. 전염병으로. 9절에는 그들 가운데에서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이다.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이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미 민수기 21장은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죽을때까지 이 광야에 있을 것이라고 결정이 났다. 이 후의 일이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가 애둥땅을 둘러서 가는데, 길이 불평이고 먹을 음식, 마실 음료가 없다. 매일 먹던거 싫다고 하면서 불평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들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많이 죽었다. 당연히 회개했다. 그리고 늦뱀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하였다. 이런 것을 쪽 이야기 하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시험은 견딜만 하다는 것이다. 감당할 만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니가 언약 잡고 있으면 마지막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속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문제라고 안하고 시험이라고 하였다.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였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가 언약만 있었으면 능히 이긴다는 것이다. 니가 언약을 놓쳐서 진 것이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언약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서 40일간 안내려오니 그 사이에 만든 것이다. 모세는 안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이다. 모압의 신을 왜 섬기겠는가? 만일 약속의 피에 대한 신앙고백이 진지했으면 절을 했겠는가?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매일 내려오는 음식이 어떤 것인데, 그것을 하찬다고 하겠는가?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이 안 난 것이다. 만일 그것이 답이 났으면 다시 돌아가자는 소리를 하겠는가? 왜 가나안을 모르는 것이다. 여기 뭐가 했는가?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주신 말이라는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

나안땅 가기 싫어, 이게 무슨 말이나? 가나안 땅 가는데 뭐지 몰랐던 것이다. 이 시대로 말하면 세계복음화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겠는가? 언약이 될 것이다. 언약이 되어지면 역사한다. 힘이 나고. 내 안에 언약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흑암세력이 꺾인다. 가나안땅을 왜 가야 하고 가야하는 이유를 알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가나안 땅에 대한 답이 안 난 것이다. 왜 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고 다 필요없다. 지금 어려운 것, 이것이 문제이다. 표면상으로 보면 육신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유혹에 걸리는 것이다. 사도바울이 보는 눈이 이렇기 때문에 문제라고 안하고 시험이라고 한 것이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아는 것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지 아는 것 중요하다. 무엇에 중요한가?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어려우면 돌아가려고 한다. 홍해 앞에서 난리가 났다. 우리도 세계복음화 해야 한다. 알면 내 인생이 커지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커지게 되어 있다.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것을 왜 모르나? 영적 문제인 것이다. 모든 것은 영적 문제이다. 사단에게서 온 문제, 죄로 인한 문제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위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다. 시험은 견딜수 있다. 이런 저런 소리 하지 말아야 한다. 시험은 견딜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기는 힘이 두가지는 완전 우상에 속은 것이고 한가지는 돌아가자는 것이었는데, 민수기 14장에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 못간다고 밤새 울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40년 유예했다. 왜냐? 그 안에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저 두려워서 울었던 사람도 있을테니,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날 모여서 모세에게 말하고 가나안땅 쳐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나 모세가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올라갔다. 어떤 사람들은 울면서 올라갔을수도 있다. 나는 본래 마음이 그게 아닌데, 두려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 결론은 다 죽었다. 살려주지 않으셨다. 이미 결정되었다. 어떤 면에서 무섭다. 그것이 너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인데,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다가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겠다. 죽을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 후대들과 함께 갔다. 이것이 그 이야기이다. 두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시험은 견딜만 하다. 언약 있으면 괜찮다. 피할 길 나온다. 하나님 약속이다. 그리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두가지인데,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이다.

2. 절대 계획

조금더 강조할 것이 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한가지를 더 보아야 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 일어난 것 다 해결해주셨다. 일부 사람들은 죽기도 했지만 용서했다. 치유할 길도 열어줬다. 그러나 한가지는 나라 전체가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안간다는 것이었다. 우상숭배도 용서하셨다. 금송아지 만들었을때에도 하나님이 말씀 새로 주셨다. 용서했다는 말이다.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그래도 그것은 일단 끝났다. 그런데 안간다는 말에 국민 전체가 죽었다. 우리는 안간다고 밤새도록 울었다. 다른건 전부 나라 전체가 아니라 국민 일부로 끝냈다. 용서해주고 해결해줬지만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이다. 다 용서할수 있다. 다 좋다. 그러나 이 일은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가는 것이었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백성들에게 전달했다. 이 중대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이 선택을 받았다. 다 용서할수 있지만 이 한가지만은 절대 안된다. 그 일에 그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을 안한다는 것이다. 그럼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본보기라는 것이다.

시대적인 복음을 우리는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 하시려는 일

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거절하면 안된다. 이 흐름을 타야 한다. 기준은 복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복음 이 한가지 뿐이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양보를 안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시대적인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흐름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할수 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 반드시 되 어질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육신적인 것이 다 이유가 되었다. 이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안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영적인 것을 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쳐다 보면 육신적인 그 일이 그 속에 뿌리로 들어가면 사단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겨야 한다. 우리도 많이 있다.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필요하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 누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가나안 땅 가는 것을 양보하지 않으신다. 세계복음화는 시대적인 계획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사단을 완전히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적인 흐름을 건드리면 안된다. 오히려 따라가야 한다. 막아서면 안된다. 그러면 광야 사람처럼 안타까운 인생 될 수 밖에 없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절대 거스르면 안된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다 죽기를 기다렸다. 20세 이하,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것이 렘넌트 운동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이 되어야 한다. 말씀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것이 민수기 21장에서 늦밤 사건이 있을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너무 험하던지 둘러간다는지 해서 불만이 나왔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길이 좋고 나쁜 것도 필요 없고 죽을때까지 광야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민수기 14장에서 결정했고 광야에 40년간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안 믿었을 것이다. 예사로 생각할수 있다. 이사야는 유명한 선지자이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는 것보다 그 당시에 이사야의 말을 들던 사람들의 믿음이 더 부족했을 수도 있다. 물론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각오를 해야 한다.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언약으로 들어와서 정말 인생 정복해야 한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과 전쟁을 매일 해야 한다. 그 전쟁을 통해서 나를 죽여야 한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죽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흐름은 세계복음화이고 부활 메시지 4개에 들어 있다.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걸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237, 치유, 서밋이다. 분명히 제자 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다. 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세워라.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렘넌트 운동 일어나는 것이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될것이라고 하였다. 약속이다. 237, 5천 종족 운동 일어나는 것이다. 언약되기 바란다. 그들은 분명히 출애굽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통과했다. 상징적으로 보면 구원은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면 약속의 피는 다 있는데, 광야에서 왜 다 죽었는가? 가나안 땅을 안 가려고 한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안하려고 한 것이다.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야 한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으려고 기록해놨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언약되기 바란다.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